

‘해트트릭 폭발’ 손흥민, 호날두·드로그바 다 넘어...EPL 통산 106골

번리 상대로 EPL 개막 4경기 만에 첫 골 신고

골 침묵 깨지자 3골 몰아치기...역전승 이끌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이 해트트릭을 폭발하며 자신의 부상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와 디디에 드로그바(은퇴·코트디부아르)를 모두 넘어섰다.

손흥민은 2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영국 번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승격팀 번리와 2023~2024시즌 EPL 4라운드에서 선발로 출전해 3골을 몰아치며 토트넘의 5-2 역전승을 이끌었다.

앞서 리그 3경기에서 침묵했던 손흥민은 시즌 마수같이 골을 터뜨리자 기대했다는 듯 소

나기처럼 몰아쳤다. 리그컵까지 포함하면 시즌 공식전 5경기 만에 나온 골이다.

2015~2016시즌 EPL에 데뷔한 손흥민은 이날 리그 통산 104~106호골을 신고하며 통산 득점 랭킹을 끌어올렸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호날두(103골·알나스르)와 은퇴한 드로그바(104골)를 모두 넘어섰다.

손흥민은 2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영국 번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승격팀 번리와 2023~2024시즌 EPL 4라운드에서 선발로 출전해 3골을 몰아쳤다. 토트넘은 5-2 대승을 거뒀다.

호날두는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이다.

드로그바 역시 역대 아프리카 출신 최고 공격수로 꼽히는 첼시의 레전드다. 현역 시절 EPL에서 두 차례 득점왕을 차지했다.

이제 손흥민은 잉글랜드 출신 공격수 대런 벤틀과 함께 EPL 통산 득점 순위에서 공동 30위에 이름을 올렸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피터 크라우치(108골), 폴 스콜스(이상 은퇴·107골)의 기록도 곧 깨 것으로 기대된다.

뉴시스



해트트릭에도 겸손한 손흥민 “동료 패스가 좋았다”

“기회 창출하는 데 모든 선수들이 관여해...팀 골”

손흥민(토트넘)이 해트트릭을 작성하고서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손흥민은 지난 2일(한국시간) 영국 번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승격팀 번리와 2023~2024시즌 EPL 4라운드에서 선발로 출전해 3골을 몰아치며 토트넘의 5-2 완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0-1로 뒤진 전반 16분 동점골을 터뜨렸고 3-1로 앞선 후반 18분에는 팀의 네 번째 골을 기록했다. 이어 3분 만인 후반 21분에 세 번째 골로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 18일 레스터시티와 2022~2023시즌 EPL 8라운드 이후 약 1년 만이다. EPL에서 기록한 개인 통산 4번째 해트트릭이다.

손흥민은 해트트릭에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3골을 넣어 행복하다”면서도 “마누 솔로몬과 페드로 포로의 패스가 좋았다. 기회를 창출하는 데 모든 선수들이 관여했다. 팀 골”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또 “선수들이 환상적인 경기를 펼

쳤다. 어려운 경기였지만 초반 10분부터 강하게 맞붙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제임스 매디슨의 득점을 칭찬했다.

그는 “내가 본 로메로의 골 중 최고였던 것 같다. 로메로는 항상 열심히 뛰다. 부주장으로서 더 많은 골을 넣기를 바란다”며 “매디슨은 패스와 움직임, 시야 모두 훌륭하다. 매디슨은 공을 갖고 있을 때나 갖고 있지 않을 때나 늘 집한다”고 평했다.

뉴시스

이루지 못한 EPL 데뷔...승격으로 자격 증명해야 할 황의조

노팅엄서 자리 못 잡은 황의조 임대 생활 선택...1부 승격 이끌 경우 반전 계기 마련 가능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 소속 황의조(31)가 챔피언십(2부리그) 노리치시티로 1년 임대 이적하며 EPL 데뷔 꿈을 이루지 못했다. 황의조 앞에는 노리치시티를 승격시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노리치시티는 2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를 임대 영입했다. 등번호는 31번”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황의조는 EPL 데뷔를 눈앞에 두고 한발 물러서게 됐다.

2019년 프랑스리그로 진출한 황의조는 지난해 8월 보르도(프랑스)에서 EPL 승격팀 노팅엄으로 이적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EPL 데뷔는 불발됐다. 황의조는 이적 후 곧바로 올림피아코스(그리스)로 임대됐다.

올림피아코스에서 치열한 주전 경쟁 속에 휴대전화 분신 후 사생활 폭로 위협에 시달

린 황의조는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며 위기에 빠졌다.

올해 2월 한국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로 6개월 단기 임대대 기량을 회복한 황의조는 사생활 폭로로 둘러싼 논란 속에 지난 달 원소속팀인 노팅엄으로 복귀했다.

프리시즌 경기에서 골을 넣는 등 절치부심한 황의조는 2023~2024시즌 개막 후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여름 이적시장 마감 때까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결국 황의조는 노리치시티 임대를 결정했다. 노리치시티는 올 시즌 챔피언십에서 3승1무1패로 리그 5위에 올라 있다. 리그 3위 안에 들어가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는 노리치는 주전 공격수 조슈아 서던트 부상 이탈 후 대체 공격수로 황의조를 택했다.

이제 황의조는 자신의 힘으로 노리치를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켜야 한다. 골망을 흔들며 득점력을 보여줘야 영국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황의조가 노리치의 1부 승격을 이끌 경우 선택지가 늘어난다. 노리치가 황의조를 붙잡을 수도 있고 원 소속팀 노팅엄이 황의조를 다시 부를 수도 있다. 황의조가 2부 리그에서 와신상담을 통해 EPL 데뷔라는 목표를 끝내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피겨 유망주 김현겸, 생애 첫 주니어 그랑프리 銀

오스트리아 린츠 대회서 21명 중 2위

그랑프리 파견 선발전 서민규 이어 2위

남자 피겨스케이팅 유망주로 꼽히는 김현겸(17·한광고)이 2023~2024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2차 대회 남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현겸은 3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린 2023~2024시즌 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 남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9.78점, 예술점수(PCS) 72.66점으로 138.31점을 받았다.

김현겸은 1일 쇼트 프로그램 73.45점을 합해 최종 211.76점으로 출전선수 21명 중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슬로바키아 출신 아담 하가라(220.33점)다.

지난 7월 태릉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23 ISU 주니어 그랑프리 파견선수 선발전에서 서민규(15·한광고)에 이어 2위로 선발된 김현겸은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자신의 첫 ISU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남녀 싱글 중



목에 출전한 선수 전원이 시상대에 올라서는 성과를 거뒀다. 김현겸에 앞서 여자 싱글에서 신지아(영동중)가 금메달, 권민솔(목동중)이 동메달을 땀다.

오는 6일부터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ISU 주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에는 여자 싱글에 윤서진(목일중)과 김유재(평촌중)가, 남자 싱글에 서민규가 출전한다.

뉴시스

K리그 돌아간 U-20월드컵 4강 진출 주축들 엇갈린 행보

김지수 이어 배준호, 황인택 등 유럽 진출 이승원·이영준 등은 팀 내 출전 기회 부족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4강 진출을 달성한 주축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K리그로 돌아간 선수들 중 해외 진출에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구단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도 눈에 띈다.

U-20 대표팀 출신 중 가장 먼저 유럽에 진출한 선수는 김지수(브렌트포드)다. U-20 월드컵에서 한국 중앙 수비를 맡은 김지수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K리그2(2부) 성남FC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브렌트포드로 이적했다.

김지수는 아직 EPL 데뷔전을 치르지는 못했지만 최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 승선하면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U-20 월드컵에서 화려한 개인기를 선보이며 상대 감독으로부터 찬사를 들었던 배준호

(스토크시티)도 영국으로 향했다. 배준호는 여름 이적시장 마감 앞두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스토크시티에 공식 입단했다.

U-20 월드컵에서 주전 골키퍼로 뛰며 선발 능력을 과시한 김준홍(김천상무)은 강현무, 신송훈과 출전 기회를 나눠가지면서 경기 감각을 이어왔고 9월 A매치를 앞두고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에 승선했다.

J리그에서 뛰는 송범근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김준홍이 그 자리를 꿰찬 것이다. 김준홍은 안드레아스 괴프케 골키퍼 코치의 눈도장을 받아 향후 A대표팀 승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수원 삼성 소속으로 서울 이랜드에 임대돼 뛰고 있던 황인택은 포르투갈 에스토릴 프리아로 1년 임대를 떠났다.

반면 일부 U-20 월드컵 4강 주축들은 K리그에서 고전하고 있다.

U-20 월드컵에서 3골 4도움을 기록하며 브론즈볼을 수상했던 주장 이승원(강원FC)은 K

리그1 무대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윤정환 강원 감독이 이승원에게 선발 출전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강등권으로 처진 팀 상황 탓에 강원이 이승원에게 성장 기회를 무한정 부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U-20 월드컵에서 최전방 공격수를 맡으며 7경기를 모두 소화한 이영준(김천상무) 역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영준은 조영욱을 비롯한 김천 기존 공격수들에게 밀려 U-20 월드컵 차출에서 부귀한 뒤 3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다. 3경기 중 선발 출전은 1경기고 공격포인트도 아직 올리지 못하고 있다.

U-20 월드컵 출신 중에는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자 과감하게 2부 리그로 임대를 떠난 선수들이 있다.

U-20 월드컵에서 중원을 누비며 왕성한 활동량을 과시한 강상윤은 전북현대에서 2부 리그 부산아이파크로 임대됐다. 강상윤은 “처음으로 팀을 옮기게 됐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즐기고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국행 배준호, 초고속 데뷔...투입 직후 위협 중거리슛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스토크시티에 입단한 배준호(20)가 영국 무대 데뷔 전부터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다.

스토크시티는 지난 2일(한국시간) 잉글랜드 스토크온트렌트에 있는 베티365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시즌 챔피언십 5라운드 프레스턴 홈경기에서 0-2로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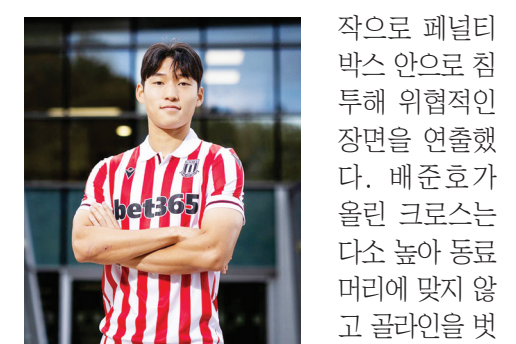
스토크시티는 2승3패 승점 6점으로 리그 16위로 처졌다. 프레스턴은 4승1무 승점 13점으로 리그 선두로 올라섰다.

지난달 31일 K리그1 대전하나시티즌을 떠나 스토크시티에 입단한 배준호는 3일 만에 데뷔전을 치렀다.

배준호는 0-2로 뒤진 후반 26분 메흐디 레리스 대신 교체 투입됐다.

배준호는 투입 1분 만인 후반 27분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자신감 있는 오른발 중거리 슛을 때렸다. 공은 골키퍼 정면으로 갔지만 슈팅 과정에서 상대 반칙이 인정돼 스토크시티에 프리킥이 주어졌다.

배준호는 후반 33분에는 재치 있는 속임 동



배준호는 거친 몸싸움에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배준호는 후반 35분에도 상대 수비수가 시도한 몸싸움에도 밀리지 않고 공을 지켜낸 뒤 코스로까지 시도했다.

알렉스 닐 스토크시티 감독은 배준호를 칭찬했다. 그는 경기 후 구단과 인터뷰에서 “배준호는 투입 후 공을 빠르게 돌리고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배준호를 포함한) 교체 선수들을 투입하려고 준비하는 시점에 2번째 골을 허용하면서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짚었다.